

알립니다

강원에코(ECO)홈페어 2019

최신 건설·건축 트렌드 한눈에

내달 15~17일 춘천 불내체육관 ... 무료 입장

녹색성장의 중심인 강원도의 건설·건축 트렌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강원에코(ECO)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가 오는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춘천 불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유일의 건설·건축 종합전시회로 △가구 및 실내 인테리어 △친환경 태양열·태양광시설 △가정용 소품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건설장비 및 공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가구, 조명, 실내 인테리어시설, 건설·건축자재 등을 제공해 도민들의 건강한 주거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건설·건축업체들의 소득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각 시·군의 홍보관이 마련돼 지역별 시책·문화·특산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8개 시·군 토목, 건축, 지적 담당자와 업체 간 '교류의 밤'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통의 장이 되도록 열린 시간을 갖습니다. 주택과 건설·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강원에코홈페어 2019'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1월15일(금)~17일(일)

◇장소 : 춘천시 근화동 구 캠프페이지 내 불내체육관

◇참가신청 : 미래전략기획실 (033)258-1810-2 F258-1815

◇관람객 입장료 : 무료

■주최 : 강원일보사·강원건설단체연합회

■후원 : 강원도, 춘천시, 17개 시·군

정부 시설공사 자재가격 인상

올 하반기 정부 시설공사 자재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조달청은 14일 민관 합동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통자재 7,583개 품목과 시장시공가격 713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한 결과 정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올 상반기에 비해 0.36%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장시공가격이 0.90%포인트, 시중 노임단가가 3.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자재가격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자재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윤종현기자

‘뜨거운 감자’ 건설업종 개편, 다음달 본격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설업종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업종의 대공종화 여부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향이 한꺼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한 건설업종 개편 TF(태스크포스) 회의가 지난 11일 열렸다.

TF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로드맵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29개인 전문업종을 10개 내외로 통합하는 대업종화 등 업종 개편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개편 방향과 영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업계, 지난주 TF회의 이어 건설정책연구용역 완료되는 이달말쯤 구체적 방향 논의 전망 대업종화 찬반 전문업계 촉각 속 협단체, 내부 의견 정리도 막바지

한 참석자는 “대업종화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참여 주체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번 TF 회의 때는 업종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단체 별로 내부 의견 조율이 막바지에 접어들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업종화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도 이달 말에는 제출안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개편 연구용역이 이달 말쯤이면 완료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는 전문업종 수를 줄이는 대업종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통일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전문건설협회 이사회 차원에서라도 논의해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는 이번주에 이사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종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도 관심사다. 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업종 개편 과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건설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F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다음 TF 회의 때는 각 협단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협회들의 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